

지역 소식통

원광대병원, 박건 교수·노수현 선생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우수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피부과에 재직 중인 박건 교수, 노수현 선생이 2017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박건 교수와 노수현 선생은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제22차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심포지엄에서 본 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원광대병원 피부과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교수와 노선생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쉽게 발톱(pincer nail)의 해부학적 변화에 대한 수술적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연세 내용을 구연, 이번 상을 수상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새만금 비응공원 무궁화동산 조성

군산시가 나라꽃을 쉽게 접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비응공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5월까지 새만금비응공원에 무궁화 적당심계 740주, 백단심계 90주 등 총 830주를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부지가 새만금 매립지임에 따라, 염분으로 인한 식재기반을 우려해 흙을 치환하고 토양 보습제를 주어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심문대 산림복지과장은 "무궁화를 심는 일 못지않게 관리 역시도 중요한 만큼 관리자 교육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방문객들이 무궁화를 통해 애국정신을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체감치안 찾아가는 홍보활동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경감 김용대)는 관내 4개소(중앙,남중,모현,송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통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통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지구대 치안소식지"와 "익산경찰서는 4대 사회약으로부터 매우 안전합니다." 전단지 배부하고 더불어 최근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3대반칙 근절'과 '포켓몬고' 안전수칙 등 각종 경찰 현안 업무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예산

“목적과 다른 사용 예산 낭비 우려”

군산시의회 김중숙 의원, 보장구 수리지원 조례안 발의 “읍면동 사업 직접 추진해 장애인 편의 늘려야”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중숙 의원은 최근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군산시가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보장구 수리 지원을 위해 지정된 위탁업체의 업무가 단순 중간 소개 업무에 그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 이 사업을 읍면동에 이관시켜 위탁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장애인 편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이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시키기 위해 읍면동이 직접 신고 접수를 받는 동시에 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자는 것.

군산시에 따르면 연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36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인건비 1600만원, 사무비용 400만원, 보장구 수리지원비 16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보장구 수리지원비 1600만원은 그간 접수된 수리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수리비용으로 추가 시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장애인이 보장구 수리를 위해 위탁업체에 수리 요청 전화를 하면 위탁업체는 다시 수리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수리업체가 장애인 가정 방문, 보장구를 가지고 가 수리한 뒤 다시 가져다주는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위탁업체의 업무는 보장구 수리 신고접수를 수리업체와 연결해주는 단순 중개 업무에 그치고 있다”며 “위탁업체의 업무를 읍면동으

로 이관시킨다면 연간 인건비 등을 위해 사용되는 3600만원 예산 전액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읍면동 사회복지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돼 오히려 장애인의 편의가 위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1개 읍면동에 월 2~3건의 수리 접수 신고가 들어오는 실정으로 큰 업무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김우민, 유선우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장애인 편의가 위면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한 뒤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최종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는 보류됐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기업 투자 잇따라

풀무원식품 이어 성진푸드 투자양해각서 체결

익산시는 지난 2월 국내 메이저기업인 풀무원식품(주)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2일 오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성진푸드(주)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투자협약 체결식에는 식품기업 성진푸드(주)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참여하였으며, 3월 초에 IPR공사와 분양계약을 예정하고 있다.

성진푸드(주) 성지환 대표는 현재 마늘을 전국 식품업체로 납품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기점으로 기존의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마늘을 이용한 천연조미료와 건강기능식품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성 대표가 이번 투자를 결정하는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R&D지원센터가 공헌한 바가 크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6대 기업지원 시설 중 식품품질안전센터는 입주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식품의 맛·향·조각감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식품원료 및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를 통하여 기능성원료 및 제품인증지원

을 통하여 기능성식품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다.

성 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의 기술지원까지 가능한 최적의 투자요건을 갖춘 곳으로 주저 없이 투자를 결정하게 됐으며 앞으로 R&D지원시설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익산시 최양욱 단장은 “익산시에 투자를 결정해주신 성진환 대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사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성진푸드가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 호텔컨벤션 건립 행정절차 이행 ‘척척’

익산시가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호텔컨벤션 건립 추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17일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161실 규모의 호텔컨벤션사업 건립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한국

산업단지공단, (유)웨스턴라이프콘소시업과 체결했다.

시는 호텔컨벤션 건립 조기착수를 위해 지난 2월 24일 경관·건축심의공공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시경관·건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이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의결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속도 높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유)웨스턴라이프콘소시업에서는 호텔컨벤션 건립부지 내 기존 건축물 12동에 대해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철거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안 완료를 목표로 철거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 강사 공개모집

군산시가 어린이들의 숲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오감발달을 도모할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의 강사를 모집한다.

‘어린이 숲체험 놀이교실’은 관내 어린이들이 숲의 자연생태 관찰 및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정서함양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6년 운영기간동안 50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신청, 3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수업회수를 늘려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강사 모집의 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군산시민으로 ‘숲 해설가’, ‘유아 숲 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림교육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자’ 가능하다.

선발기준은 서류(40%), 면접(30%), 시연평가(30%)를 거쳐 총 4명을 선발하게 되며, 선발된 강사는 4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활동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이며, 지원자는 지원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어린이행복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 서비스 ‘호응’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현장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 해 신청자 5,473명에게 3,827필자(면적 2,73km)의 숨어있던 땅을 찾아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일정별 읍·면·동 행정방문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월의 현장방문 일정은 7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9일 옥산면, 14일 회현면, 16일 임피면, 21일 서수면, 23일 대야면과 28일 개장면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군산시의 현장행정서비스는 토지정보과장을 반장으로 합동운영반을 편성하여 위치 찾아주기, 새주소 안내, 지적민원상담 등 시민들에게 지적행정의 종합적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망 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소유부지, 금융거래, 국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군산시가 납세자의 고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3월 한 달을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체납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차량은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일괄적인 번호판 영치에 착수하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익선 군산시 징수과장은 “고액체납세자의 경우 고액체납세 징수 T/F팀을 구성, 징수활동을 통해 숨긴 재산을 추적·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featuring a child, buildings, and text: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Includes logos for DreamHub GUNSAN and GUNSAN CITY.